정일우·박서진 압도적 기량…전남 육상 빛냈다

〈여수시청·포환던지기〉 〈목포시청·해머던지기〉

전국실업육상선수권 각각 금메달…아시안게임 출전 전망 밝혀

높이뛰기 여수시청 김은정 금메달 등 전남 금 3·은 4·동 3 획득

포환던지기 한국기록보유자 정일우(여수시청)와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전망을 밝혔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여수 망마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시 선수권 대회 및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선발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정일우와 박서진은 압도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포환던지기 한국기록보유자 정일우는 19m, 박서진(목포시청)은 해머던지기에서 57m97을 던져 각각 2위를 멀찍이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들은 오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무난히 태극마크를 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회에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다.

김은정(여수시청)은 높이뛰기에서 1m70cm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은메달은 4개가 쏟아졌다. 남자세단뛰기에서 김장우(장흥군청)는 16m02, 여자5000m에서 임경희(나주시청)는 16분47초08, 여자 10kmw(경보)에서 이세하(여수시청)는 51분 20초의 기록으로, 남자 해머던지기에서는 윤승찬(장흥군청)이 59m93을 던져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3000mSC(장애물달리기)에서 김효수(나주시청)는 9분 35초 56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10,000m에서 임경희(나주시청)는 5,000m에 이어 연속 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포환던지기 정소은(목포시청)은 15m 14로 각각 3위에 올랐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동계훈련과 각 지역실업팀 감독 및 코치님들이 잘 지도하고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포환던지기 금메달 정일우(오른쪽).

해머던지기 금메달 박서진(오른쪽).

여자 높이뛰기 금메달 김은정(뒷줄 가운데).

광주 북구청 조관현 전국검도대회 개인전 우승

'탑솔라 여자실업팀' 단체전 3위

광주 북구청 조관현이 전국 검도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조관현은 4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춘계전국실업대회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김제승(창원시청)을 1-0으로 꺾고 1위에 올랐다.

조관현은 32강전에서 김민규(부산시체육회)를 판정승으로 따돌리는 등 초반 고전했으나 페이스를 회복해 정상에 올랐다.

16강전에서 원종경(인천시청)을 2-1, 8강전에서 강배훈(광명시청)을 2-1로 꺾었다. 이후 4강전과 결승전에서 한 점도 잃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광주에서 유일한 여자팀인 '탑솔라 여자실업팀'이 3위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광주 북구청 조관현.

단체전 3위에 오른 탑솔라 여자실업팀.

순천서 3년만에 열린 배드민턴 코리아오픈

잇단 코로나 기권 속 빠른 회복 안세영 출전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열린 코리아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코리아오픈)가 일부 '스타급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5일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 여자 복식에 출전하기로 한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과 이소희-신승찬(이상 인천국제공항 스카이몬스)이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김소영과 공희용, 신승찬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대회를 기권했다"며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들이 출전하지 못하고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은 6일 32강전에 출전한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한 김소영-공희용과 준우승을 차지한 이소희-신승찬이 대회에서 빠지면서 정나은-김혜정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정나은-김혜정은 지난달 전영오픈에서 세계 랭킹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3위에 오른 바 있다.

여자 단식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도 지난달 전영오픈에 참가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빠른 회복을 보이며 대회 출전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격리를 마치고 귀국한 안세영은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한 뒤 4일부터 이번 대회가 열리는 순천의 인근 도시인 강진에서 개인 훈련을 실시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안세영은 코로나19 확진 후 별다른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9년 대회서 32강 탈락한 안세영은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여자단식 우승 후보로 꼽힌다.

안세영도 전영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기세를 이어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한다는 각오다.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와 2위 타이쯔잉(대만)이 이번 대회에 불참한 가운데 3위 천위페이(중국)를 넘어서야 우승이 가능하다.

코리아오픈은 5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첫날인 5일 경기에서는 여자 단식 김가은(삼성생명)이 싱가포르의 웨 옌은을 2-0(21-7 21-8)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또 혼합 복식 강민혁(삼성생명)-백하나(새마을금고),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 신태양-장예나(이상 김천시청)도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아스널, 크리스털 팰리스에 0-3 충격패

손흥민의 토트넘 챔스리그 마지노선 4위 유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중인 아스널이 크리스털 팰리스에 완패하며 4위 탈환에 실패했다.

아스널은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1-2022 EPL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크리스털 팰리스에 0-3으로 졌다.

아스널은 승점 54, 골 득실 +10으로 5위에 자리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 마지노선인 리그 4위를 달리던 아스널은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에 그치며 주춤하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가 전날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5-1 대승으로 리그 3연승을 달리며 4위(승점 54·골 득실 +15)로 올라선 가운데 아스널은 그 직후 4위를 되찾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EPL에선 맨체스터 시티(승점 73)와 리버풀(승점 72)이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첼시(승점 59), 토트넘, 아스널, 웨스트햄(승점 51·골 득실 +1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51·골 득실 +8) 등이 UCL 진출을 다투고 있다.

아스널을 완파한 크리스털 팰리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2무의 상승세 속에 9위(승점 37)로 도약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전반 16분 장 필리프-마테타의 헤딩 선제 결승 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24분 조던 아예우의 추가 골로 전반 2골 차로 앞섰다.

쉽게 반격하지 못한 아스널은 후반 27분 마르틴 외데고르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하던 윌프리드 자하를 걸어 넘어뜨려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무너졌다. 직접 키커로 나선 자하가 쐐기 골을 터뜨렸다.

이번 주말 아스널은 9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홈 경기를, 토트넘은 10일 애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절대 1강' 신진서

28개월 연속 바둑 랭킹 1위

한국 바둑의 최고수 신진서 9단이 28개월 연속 랭킹 1위를 지켰다.

신진서는 5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4월 한국 바둑 랭킹에서 1만338점을 기록, 박정환(9998점) 9단을 400점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굳게 지켰다.

이로써 신진서는 2020년 1월부터 28개월 동안 한국 바둑 최강자 자리를 놓지 않았다.

신진서는 지난 3월 춘란배에서 8강에 오르는 등 6승 1패를 기록했으나 랭킹 점수는 오히려 8점 떨어졌다. 그러나 2위인 박정환이 지난달 6승 3패에 그치며 35점이나 감소한 탓에 둘의 점수 차가 더 벌어졌다.

변상일·이동훈·김지석 9단은 순위 변동 없이 2~5위를 지켰다. 신민준 9단은 지난달 7승 2패를 상승세를 타며 3개월 만에 6위로 복귀했다.

원성진 9단은 한 계단 하락한 7위가 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김명훈 8단은 다섯 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뜨거운 피
2관	뜨거운 피
3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더 배트맨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5관	뜨거운 피
6관	극장판 주술회전 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9관	문폴
7관 씨네커플	스펜서, 메리 미, 언차티드
8관 씨네커플	리디밍 러브, 벨파스트, 에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 2022.04.27.(수)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